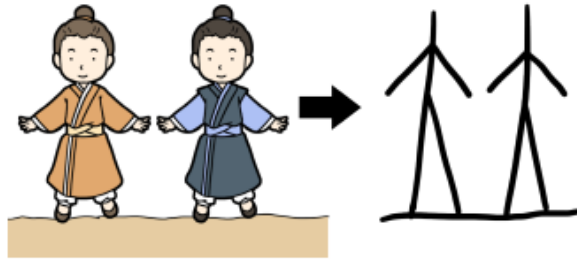


상형문자①



竝

나란히  
병:

竝자는 '나란히'나 '함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竝자는 두 개의 立(설립)자가 함께 그려진 모습이다. 立자가 땅위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니 竝자는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竝자는 이렇게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는 의미에서 '나란히'나 '함께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竝자는 종종 並(나란히 병)자가 쓰일 때가 있는데, 竝자나 並자 모두 쓰는 방식의 차이일 뿐 의미는 같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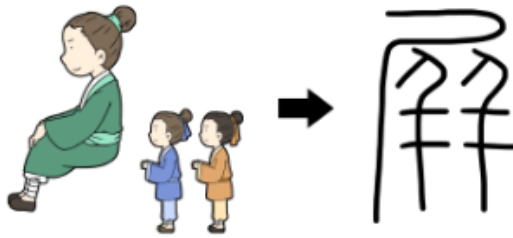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屏

병풍  
병(·)

屏자는 '병풍'이나 '가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屏자는 尸(주검 시)자와 井(아우를 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井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아우르다'라는 뜻이 있다. 屏자는 이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그린 井자를 응용해 시야를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뜻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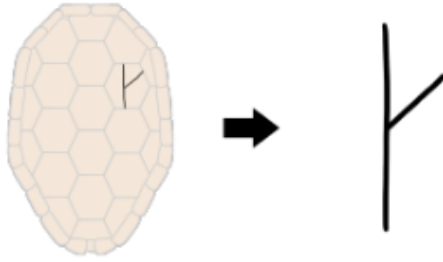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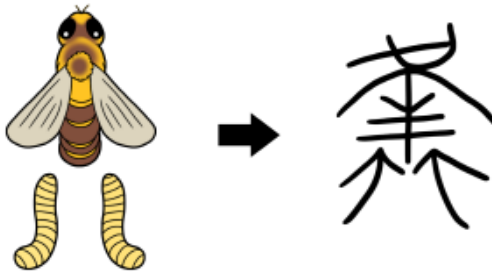
卜

점 복

卜자는 '점'이나 '점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卜자는 고대에 점을 치던 방식에서 유래한 글자다. 고대에는 달궈진 쇠꼬챙이를 거북의 배딱지(腹甲)에 지지 갈라진 모양과 소리에 따라 길흉을 점쳤다. 卜자는 이때 갈라진 획과 구멍을 함께 그린 것이다. 그래서 卜자는 점괘가 나온 모습에서 '점'이나 '점괘'를 뜻하게 되었고 후에 점괘를 헤아려본다는 의미에서 '추측하다'나 '헤아리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참고로 거북의 배딱지에 나온 점괘를 새겨 기록한 것이 바로 '갑골문'이다.

|     |    |    |    |
|-----|----|----|----|
|     |    |    |    |
| 갑골문 | 금문 | 소전 | 해서 |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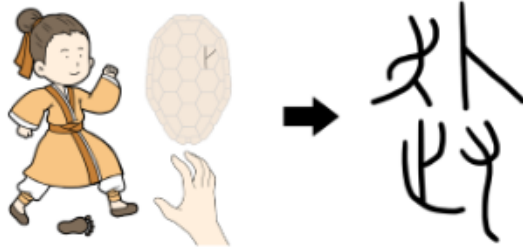
蜂

벌 봉

蜂자는 '벌'이나 '꿀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蜂자는 虫(벌레 충)자와 夆(꿀 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夆자는 '꿀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과 함께 모양자 역할을 하고 있다. 금문에 나온 蜂자를 보면 夆자 아래로 두 개의 虫자가 夆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꿀벌과 애벌레를 함께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夆(쉬엄쉬엄 갈 착)자가 더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벌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복잡한 획이 간략화되면서 지금은 虫자와 夆자만이 결합한 蜂자가 '꿀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    |    |    |
|----|----|----|
|    |    |    |
| 금문 | 소전 | 해서 |

형성문자①



赴

다다를[趨而至]/  
갈[趨]  
부:

赴자는 '나아가다'나 '다다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赴자는 走(달릴 주)자와 卜(점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卜자는 '점괘'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복→부'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赴자는 사람이 앞으로 달려가거나 나아가는 것을 뜻하기 위해 走자의 의미를 응용한 글자이다. 본래 금문에서는 又(또 우)자도 있어서 어떠한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뜻을 표현했었지만, 지금은 생략되었다.

赴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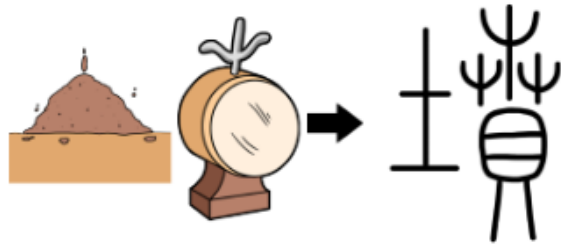
赴

소전

赴

해서

회의문자①



墳

무덤 분

墳자는 '무덤'이나 '봉분',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墳자는 土(흙 토)자와 墳(큰 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墳자는 큰 북을 그린 것으로 '크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크다'라는 뜻을 가진 墳자에 土자가 결합한 墳자는 '흙이 크게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墳자는 둥근 형태의 '무덤'이나 '언덕'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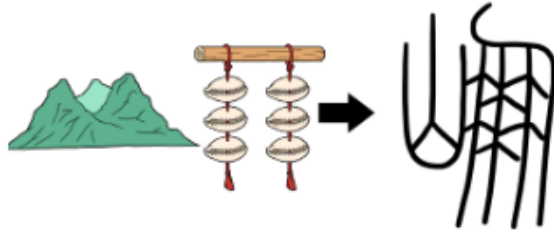
소전

墳

해서

3  
-  
117

회의문자 ①



崩

무너질  
붕

崩자는 '무너지다'나 '훼손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崩자는 山(되 산)자와 朋(벗 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朋자는 조개를 엮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山자가 결합한 崩자는 줄이 끊어져 마노 조개가 쏟아지듯이 산의 토사가 무너져 내린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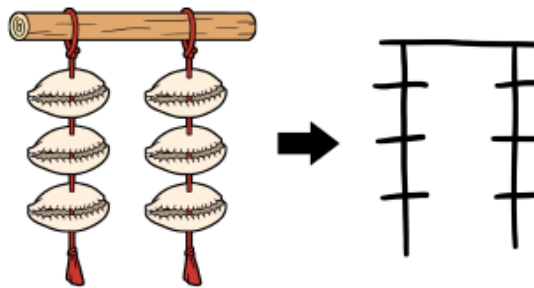
소전

崩

해서

3  
-  
118

상형문자 ①



朋

벗 붕

朋자는 '친구'나 '무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朋자는 두 개의 月(달 월)자를 나란히 그린 것이지만 사실 '달'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朋자의 갑골문을 보면 조개를 엮어 양 갈래로 늘어트린 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돈뿔치'를 표현한 것이다. 상(商)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은 귀한 '마노 조개'를 화폐 대응으로 썼었다. 그래서 朋자는 화폐를 묶어 놓았다는 의미에서 '돈뿔치'를 뜻했었다. 하지만 금속화폐가 등장하면서부터는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되어 '벗'이나 '친구'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조개가 서로 연결된 모습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벗'을 연상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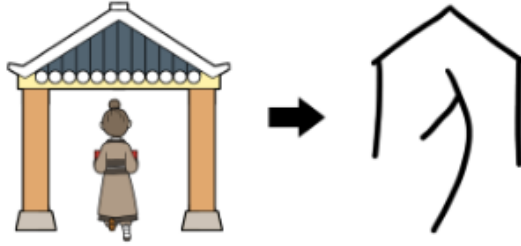
朋

소전

朋

해서

회의문자①



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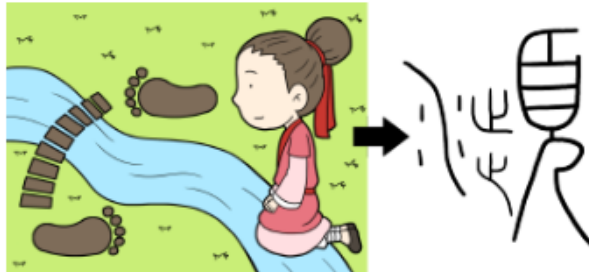
손 빈

賓자는 '손님'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賓자는 宀(집 면)자와 止(발 지)자,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賓자는 매우 단순했었다. 집을 뜻하는 宀자에 人(사람 인)자만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손님이 방문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후 금문에서는 貝자가 더해지면서 손님이 선물을 들고 방문한다는 의미가 더해지게 되었다. 소전에서는 사람 대신 발을 뜻하는 止자가 쓰였는데, 역시 선물을 들고 손님이 방문했다는 뜻이었다. 후에 止자가 변형되면서 지금의 賓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     |    |    |    |
|-----|----|----|----|
|     |    |    |    |
| 갑골문 | 금문 | 소전 | 해서 |

회의문자①



頻

자주 빈

頻자는 '자주'나 '빈번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頻자는 步(걸음 보)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문과 소전에서는 涉(건널涉)자와 頁자가 결합한 瀕(물가 빈)자가 '자주'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瀕자는 물가 양쪽에 발자국을 그려 놓은 것으로 사람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水자가 생략된 頻자가 '자주'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    |    |    |
|----|----|----|
|    |    |    |
| 금문 | 소전 | 해서 |